

출 장 자	소 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직 위	연구위원	성 명	김은경 김영택 김복태 조영숙(객원) 심예리(위촉)
출장기간	2017.09.11(월) - 2017.09.15.(금)		출장지	캄보디아 프놈펜		
출장목적	<input type="checkbox"/>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수탁과제로 캄보디아 성 평등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직업훈련교육, 보건, 농촌개발, 반여성폭력 공공행정 분야의 현지 여성정책 담당 정부부처 및 시민사회 여성단체와 간담회 개최 통해 젠더와 SDGs 및 한국의 각 분야 ODA에 대한 인식, 수요, 향후 방안에 대해 논의함 <input type="checkbox"/> 캄보디아 젠더 사업 관련 모범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현지 양자 원조기구 방문 및 면담					
경비부담	약 1,000 만원					
주최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방문기관/ 회의명	면담자/참석자		논의내용			
JICA 캄보디아 사무소	Mr. Hayashi Eiichiro		<input type="checkbox"/> JICA 캄보디아 젠더 사업 <input type="checkbox"/>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젠더 지표 <input type="checkbox"/> 젠더 사업의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향후 젠더 사업 계획			
KOICA 캄보디아 사무소	김명진 부소장, 김지윤 부소장, 원지혜 부소장		<input type="checkbox"/> KOICA 캄보디아 사무소 사업 현황 <input type="checkbox"/> 젠더 사업에 대한 현지 사무소 관심 <input type="checkbox"/> 중장기 전략 및 젠더 지표			
주캄보디아 호주대사관 개발협력팀	Ms. Sayvuoy Tuon, Ms. Benita Sommerville		<input type="checkbox"/> DFAT 젠더 전략 <input type="checkbox"/> 사업평가 요소 중 젠더의 중요성 <input type="checkbox"/> 젠더를 단독 목표로 하는 캄보디아에서의 사업 <input type="checkbox"/> 캄보디아 성 주류화 전략 및 사업 <input type="checkbox"/> 캄보디아-한국 ODA 사업에 대한 조언			

<p>캄보디아 여성정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오프닝 세션</p>	<p>캄보디아 여성부 캄보디아 CSO(SILAKA) 컨설턴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본 연구 소개 <input type="checkbox"/> 캄보디아 여성부 젠더 사업 소개
<p>캄보디아 여성정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TVET 분야</p>	<p>캄보디아 여성부 캄보디아 노동부 캄보디아 CSO(SILAKA) 컨설턴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캄보디아 직업훈련교육 분야 ODA 사업 수요 및 향후 방안에 대한 논의
<p>캄보디아 여성정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농촌개발 분야</p>	<p>캄보디아 여성부 캄보디아 농촌개발부 캄보디아 CSO(SILAKA) 컨설턴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캄보디아 농촌개발 분야 ODA 사업 수요 및 향후 방안에 대한 논의
<p>캄보디아 여성정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보건 분야</p>	<p>캄보디아 여성부 캄보디아 CSO(SILAKA) 컨설턴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캄보디아 보건 분야 ODA 사업 수요 및 향후 방안에 대한 논의
<p>캄보디아 여성정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공공행정 분야</p>	<p>캄보디아 여성부 캄보디아 CSO(SILAKA) 컨설턴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캄보디아 공공행정 분야 및 반여성폭력 관련 ODA 사업 수요 및 향후 방안에 대한 논의

출장 복명서

「캄보디아 성 평등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연구 관련
해외출장」

2017. 09. 2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캄보디아 성 평등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연구 관련 해외출장 」

I 출장 개요

1 출장 배경 및 목적

가. 배경

- 캄보디아는 한국의 중점협력국가로 최근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이 수립되었으며, 중저소득국 진입을 바라보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국가로서 향후 한국 ODA가 지속적으로 투입될 국가임.
- 향후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해 직업훈련교육, 보건, 농촌개발, 반여성폭력 공공행정 분야의 젠더관련 ODA 및 SDGs에 대한 현지 인식, 요구사항 및 개선할 점에 대한 파악이 필요함.

나. 목적

- KOICA 현지 사무소 및 캄보디아에 진출한 선진 양자 원조기구를 방문하여, 현지 젠더 사업 경험에 대해 인터뷰 진행.
- 직업훈련교육, 보건, 농촌개발, 반여성폭력 공공행정 분야의 젠더관련 ODA 수요 및 향후 방안에 대해 캄보디아 여성정책 담당 정부부처 및 시민사회 여성단체 리더들과 간담회 개최

2 출장 기간 및 출장지, 출장자

가. 출장기간: 2017. 09. 11.(월) - 2017. 09. 15.(금) [3박 5일]

나. 출장지: 캄포디아 프놈펜

다. 출장자: 김은경 연구위원, 김복태 연구위원, 김영택 연구위원, 조영숙 객원연구원, 심예리 위촉연구원

II

세부일정 및 논의내용

1

세부일정

일자	세부내용 및 출장자의 예산항목	장소
9/11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은경, 김영택, 김복태, 심예리 출국 (인천 19:30 -> 프놈펜 22:55/ OZ 739) • 조영숙 출국 (방콕 17:30 -> 프놈펜 18:40/ PG 935) 	인천->프놈펜 방콕->프놈펜
9/12 (화)	• JICA 방문 (9:00)	프놈펜
	• KOICA 방문 (11:00)	
	• 주캄보디아 호주대사관 개발협력팀 방문 (15:30)	
9/13 (수)	• 캄보디아 현지 여성정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프놈펜
9/14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캄보디아 현지 여성정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 귀국 (프놈펜 23:55 -> 인천 +1 07:15/ OZ 740) 	프놈펜 프놈펜->인천
9/15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도착 (07:15) (김은경, 김영택, 김복태, 심예리, 조영숙)	프놈펜->인천

2 논의내용

가. JICA 캄보디아 사무소 면담

□ 배석자

JICA	Mr. Hayashi Eiichiro (Project Formulation Advisor)
본원 참석자	김은경 연구위원, 김복태 연구위원, 김영택 연구위원, 조영숙 객원연구원, 심예리 위촉연구원

□ 면담내용

- (질문) JICA 젠더관련 주요 사업인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 우리 연구 분야(직훈, 보건, 농촌개발, 공공행정)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답변) JICA 캄보디아의 3대 프로젝트 우선순위 분야

- 1) 경제활동을 위한 기반 강화 (경제 인프라 개발, 농업 및 농촌개발 등)
- 2) 사회적 개발 촉진 (물 공급 및 하수 시스템 개발, 보건 및 의료보호 개선, 교육의 질 개선, 대인지뢰 제거 등)
- 3) 거버넌스 강화 (중앙 및 지방 수준에서의 조직법 이행을 위한 역량개발 프로젝트, 성주류화 프로젝트 등)

젠더 이슈는 JICA 캄보디아 사무소에서 가장 오래된 활동 분야 중 하나임. 1994년 사무소가 출범한 이후 1996년 캄보디아 여성부(MoWA)에 전문가 파견. 1996-1998년, 1999-2001년, 2008-2010 여성부에 전문가 1명씩 파견. 여성부와 함께 일하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2003-2008년 사업 개시. 주로 여성부 직원들의 역량개발 관련. 여성부와 협력하여 젠더 관점의 프로젝트 관리 개발. 일명 PGM 방식(Project on Gender Mainstreaming Method). 프로젝트 사이클 관리에 젠더 관점이 추가된 것.

- (질문) PGM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 부탁. 성별분리 통계를 뜻하는 것인지?

(답변) 젠더 통계는 2003-2008년 프로젝트 중 한 요소였음. 주요 요소는 정책이었음. 통계 없이 보다 나은 젠더관련 정책을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캄보디아 여성부는 기획부(Ministry of Planning)와의 협력 하에 통계를 구축함. 이후 캄퐁참(Kampong Cham)에서 시범사업 이행. 2단계 프로젝트를(2010-2015년)를 개시. 2단계에서는 주(province) 단위의 실제 활동에 중점을 둬.

○ (질문) 시범 사업에 대한 평가

(답변) 양계 프로그램은 성공적이었음. 불교 국가인 이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절에 닭을 기부하는데, 전에는 구매해서 기부해야 했다면, 이제 양계를 배운 사람들은 직접 키워서 기부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시장에서 팔 수도 있게 됨. 식품가공은 양계와 달리 어려웠음. 생산 후 거래할 수 있는 좋은 시장을 찾아야 하는데 마케팅이 부족함. 식품안전 유지 등의 문제도 있음.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늘 실수를 할 수 있음. 우리 실수는 시범사업 자체에 너무 집중해서 처음에 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는지 이유를 잊어버린 것임. 지역 수준의 프로젝트에서 얻은 결과를 중앙 정부 정책으로 가져오는 피드백이 필요한데, Phase 2에서 이 부분이 취약했음.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올해 3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함. Project on Gender Mainstreaming for Women's Economic Empowerment (PGM WEE) 이다.

○ (질문) 여성의 역량강화를 어떻게 측정하는가?

(답변) 양적 데이터를 수집할 수는 없지만, 시범사업 참가자 인터뷰를 통해 변화를 알 수 있었음. 농촌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남편들이 아내를 무시하는 일임. 그런데 백신을 놓는 방법 등을 배운 여성들에게 배우기 위해 이웃마을 남자들이 방문하는 것을 본 남편들이 가장 놀랐다고 함. 남편들의 인식이 변하게 되어 이제 아내들이 하는 활동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제는 아내가 하는 말에도 귀를 기울이게 된 것임. 꼭 '리더', '리더십'이라고 규명하지 않아도 가정 내 상황이 변화하고 부부가 서로 귀 기울여주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변화가 있을 수 있음.

○ (질문) 이러한 변화는 프로젝트 계획 단계부터 의도되었던 것인지? 이미 젠더 요소가 있으니 측정만 하면 되는데, 왜 측정을 안 하는지?

(답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음. 하지만 중앙 정부에서 최고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방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함. 아직 도전과제가 많지만 새로운 프로젝트에서는 어떻게 각 가정에서 일어난 변화를 일반화하여 측정할지 고민해보고자 함.

○ (질문) JICA 여성 보건 관련 프로젝트는 없는지?

(답변) 보건 사업도 JICA의 가장 오래된 사업 중 하나임. 우선 병원시설 보수 등 인프라를 구축한 뒤 기술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함. 인적 자원이 해결된 후 필요하면 건물을 또 짓기도 하고, 일본에서 의사들을 초청하기도 함. 무엇보다 보건부와 논의를 해서 수요를 파악함.

○ (질문) 설명해준 JICA 양계 시범사업은 가치사슬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지?

(답변) 부분적으로 사실임. 아직까지는 캄퐁참 주에 집중되어 있지만, 옆에 다른 주들까지 프로젝트 범위를 넓혀가고, 6번 국도를 따라 시엠립까지 연결할 수 있다면, 하나의 지역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 것임.

나. KOICA 캄보디아 사무소

□ 배석자

KOICA	김명진 부소장, 김지윤 부소장, 원지혜 부소장
본원 참석자	김은경 연구위원, 김복태 연구위원, 김영택 연구위원, 조영숙 객원연구원, 심예리 위촉연구원

□ 면담 내용

○ (질문) 캄보디아 사무소 규모

(답변) 현지직원 포함 총 28명

○ (질문) 캄보디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개수

(답변) 프로젝트 사업, 봉사단 파견, 초청 연수로 분리되며, 프로젝트 사업은 총 11개. 사후관리 사업 등이 포함됨.

○ (질문) 이 중 젠더 사업이 있는지?

(답변) 없음. 농촌개발 사업 내 여성지도자 (Village development committee, VDC 멤버)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하는지가 마을 사업 평가에 포함되어 있음. 명확하게 지표로 포함된 것은 아님.

○ (질문) 캄보디아 사무소에 젠더 전문가 혹은 젠더 가이드라인 있는지?

(답변) 본부 젠더 담당관 제도가 있으며, 본부 가이드라인을 따름. 프로젝트 사업 요청서를 받을 때 젠더 요소를 고려하고 있는지 체크하게 되어 있음. 11개 사업 중 젠더 standalone 프로젝트는 없지만 스크리닝을 거침.

○ (질문) 그렇다면 어떻게 젠더를 범분야 이슈로서 각 프로젝트에 주류화하려고 노력하는지?

(답변) 여성 수혜자 수로 측정하려고 함. 가장 측정 가능하면서 객관적인 지표임. 기초선과 종료선 데이터 수집을 최근에 의무화함. 올해 목표는 30%이

고, 앞으로 늘려갈 방안. 젠더 통합을 위한 체계는 다 갖추고 있으나, 다만 이행을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성과 측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임. SDGs와 연계된 KOICA 5개 주요 분야와 10개 분야별 표준 지표가 설정됨. 이 안에 젠더가 포함되어 있음.

○ (질문) 모자보건 외 보건 분야 사업

(답변) 모자보건 사업은 워낙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모자보건을 좀 줄이고 비전염성 사업을 고려 중임.

○ (질문) SDGs 고려한 농촌 연계 사업 발굴

(답변) 현재 사무소에서 이행하고 있는 사업은 SDGs 도입 이전부터 해온 계속사업임. 어떻게 SDGs로 잘 전환시킬 수 있을지 본부에서 고민하고 있음. KOICA 중장기 5개 주요 분야, 10개 전략 및 지표를 설정했으므로, 모든 사업이 SDGs와 연결이 되지만, 지표를 실제로 측정하고 이행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림.

다. 주캄보디아 호주대사관 개발협력팀

□ 배석자

DFAT	Ms. Sayvuoy Tuon (Program Manager, Development Cooperation), Ms. Benita Sommerville (First Secretary, Development Cooperation)
본원 참석자	김은경 연구위원, 김복태 연구위원, 김영택 연구위원, 조영숙 객원연구위원, 심예리 위촉연구위원

□ 면담 내용

○ (질문) DFAT의 젠더 전략

(답변) DFAT의 젠더 전략에 따라 개발협력력을 포함한 모든 외교정책에서 젠더를 주류화하도록 되어 있음. 원조 프로그램에서 젠더에 대한 포커스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음. 특히 지난 10년간 이 포커스가 더 강화됨. 전체 원조 프로그램 중 80%에 젠더가 중요한 요소로 (significant gender component) 들어가 있어야 함. 단순히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게 그 체크박스에 표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함. 즉, ‘여성과 여아를 참여시키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수준에서, 얼마나(to what extent)’ 여성과 여아를 참여시키는가가 중요함.

○ (질문) 젠더 지표

(답변) 매년 Aid Quality Check를 할 때도 젠더가 포함됨. 6개 항목은 효율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모니터링과 평가, 연관성, 성 평등. 이 항목에 따라 매년 각 프로그램에 성 평등이 얼마나 통합되었는지 평가. 성별분리통계가 얼마나 구비되어 있는지, 또한 이 통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등. 모든 사업이 예외없이 젠더를 고려해야 함. AQC에서 각 항목마다 1-6점을 받을 수 있음. 4는 만족, 6은 최고, 1은 가장 낮은 점수. 이 리뷰는 각자 하는 self-check 리스트임.

○ (질문) 캄보디아 사업의 우선순위 분야

(답변) 인프라, 농업, 보건 및 교육. 이렇게 3개 분야가 있고 포괄적 참여 및 거버넌스라는 항목에 장애, ERAW 등 범분야 이슈가 있음.

○ (질문) 젠더 사업

(답변) 여성대상폭력종식(EVAW) 프로그램이 막 종료됨. 다음 단계 사업을 계획 중에 있고, 내년 중반 정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 이 프로그램은 EVAW를 위한 역량강화에 중점을 둠. 사법 서비스 접근 향상 등. 반여성폭력 국가 행동계획 수립 지원. 여성폭력 발병 건수 조사도 지원. 캄보디아 인구 및 보건 조사에 가정폭력에 대한 챕터를 넣을 수 있도록 지원.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원인을 조사하는 연구도 진행. 또한 NGO들이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자금 지원. 그 밖에 독일 GIZ와 협력 하에 여성의 사법 접근 향상을 위해 일함. 남편을 고소한다는 법적 조치는 여성들에게 매우 어려운 선택인데, 이 선택을 하는 여성들을 안전하게 리드할 수 있도록 캄보디아 여성부 역량강화. 여성부가 Technical Working Group for Gender-Based Violence를 수립할 수 있도록 돕고, GBV를 정부 내 효과적으로 주류화할 수 있도록 함. 과연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냐고 묻는다면, 답은 아니지만 최소한 전 부처에 걸쳐 이러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제들을 마련한 것임. 마을의 다양한 분야에 여성들이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음.

○ (질문) 부문별 프로그램에서의 성 주류화

(답변) 농촌개발에서는 CAVAC 관개 프로그램이 있음. 관개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자문 그룹을 구성함. 한 가지 지표는 최소 30% 여성이 의미 있는 참여를 해야 한다는 것임. 단순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역량강화가 되었는가 질문함.

○ (질문) SDGs가 끼친 영향

(답변) 젠더는 항상 DFAT의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SDGs가 준 영향은 없음.

현장에 있는 이들에게 SDGs는 MDGs와 크게 다르지 않고, 어떻게 보고하는지의 문제임. SDGs보다는 우리 부 장관의 리더십이 더 중요하게 작용함. 호주는 장애 문제, 젠더 이슈 등을 이끌어야 한다는 기대가 있음.

○ (질문) 모자보건 외 캄보디아에 필요한 다른 보건 사업은?

(답변) 내년에 종료되는 성·생식보건 사업이 많아서 이 부분에 큰 갭이 있을 것임. 여성의 재생산 보건의 그들의 경제적 역량강화와 연결되어 있음.

○ (질문) 젠더 프로젝트 관련 한국에 대한 조언

(답변) 한국은 캄보디아의 특정 부문에서 이미 오랜 기간 원조를 해옴. 인프라 같은 경우 네트워크를 아주 잘 구축하고 있음. 이렇게 한국이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인프라 같은 부문에서 젠더가 생소한 이행 파트너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한다면 좋을 것. 예를 들어 농촌개발부, 농수산산림부 등과 젠더를 논의하며, 왜 그들이 여성부의 조언을 들어야 하는지 이야기해보고, 그들의 GMAP(gender mainstreaming action plan)을 어떻게 하면 이행할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함.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는 것보다 이것이 한국에게 부가가치가 있는 프로젝트가 될 것임.

라. 캄보디아 현지 여성정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오프닝 세션

□ 배석자

캄보디아 참석자	Ms. Hou Nirmita (여성부), Mr. The Chhun Hak (여성부), Ms. Sem Chenda (컨설턴트), Ms. Thyda Khus (CSO), Ms. Reasy (CSO)
본원 참석자	김은경 연구위원, 김복태 연구위원, 김영택 연구위원, 조영숙 객원연구원, 심예리 위촉연구원

□ 면담 내용

○ (질문) 현재 이행 중인 여성부 프로젝트

(답변) JICA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 UNICEF 아동폭력방지 / ADB 기후변화 적응 / 호주 눈 건강에서의 젠더 / IFAD 프로젝트 / UNDP, Sida 프로젝트

○ (질문) 젠더 ODA가 줄어든 배경

(답변) 캄보디아는 저소득국에서 중저소득국으로 진입하고 있음. 이 과정에

서 많은 ODA가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사회 서비스나 젠더 이슈를 다루는 MOWA는 유상 원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음. 예산의 감소, 증가와 상관없이 성 주류화를 통해 각 부처가 젠더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 캄보디아 젠더 평가를 위한 니어리 라타낙 4차를 각 부처에서 활용할 것을 제안했지만, 아직 역량이 부족한 상황.

○ (질문) 전환기에 대한 의미

(답변) 예를 들어 경제 부문에 양계 등 몇몇 시범사업이 있음. MOWA 역할은 양계나 양계관련 가치사슬에 대한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치사슬에서 여성에 대한 이익이 무엇인지 보고 이에 대해 다른 관련 부처들(산업부, 농촌개발부 등)도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소개하는 것임. 단일 부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부문과 연계해주는 일이 여성부 담당임.

○ (질문) Sida와 UNDP 프로젝트

(답변) 젠더 정책 및 기제의 제도화 / 성 평등 관련 소셜 미디어 통해 청소년 참여율 높이기 / 중앙 및 지방정부 수준에서 여성 리더십

○ (질문) 어떻게 젠더를 프로젝트로 만들 수 있는지?

(답변) 프로세스로서의 젠더와, 부문 내 젠더로 구분할 수 있음. 프로세스는 프로젝트 설계 과정에서 어떻게 특정 프로그램, 프로젝트가 성 평등 정책 혹은 국가 성 평등 전략과 연계될 수 있는지 여부. 부문 내 젠더는, 부문에 따라 구체적인 여성 역량강화 사업이 필요함.

○ (질문) 니어리 라타낙 전략 업데이트

(답변) 니어리 라타낙은 전 부처가 함께 논의해서 만든 젠더 전략임.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부처들이 니어리 라타낙을 여성부만의 전략으로 착각함. 다음 단계에서는 여성부 로고를 지우고, 국무총리 서명을 받은 후 Council of Minister 승인을 받아 국가 수준의 정책으로 전 부처가 확실히 인지하도록 할 예정임.

마. 캄보디아 현지 여성정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TVET 분야

□ 배석자

캄보디아 참석자	Mr. Tong Meng Ang (노동부), Ms. Soth Sithon (여성부), Ms. Hou Nirmita (여성부), Mr. The Chhun Hak (여성부),
----------	---

	Ms. Sem Chenda (컨설턴트), Ms. Thyda Khus (CSO), Ms. Reasy (CSO)
본원 참석자	김은경 연구위원, 김복태 연구위원, 김영택 연구위원, 조영숙 객원연구원, 심예리 위촉연구원

□ 연담 내용

○ (질문) 캄보디아 여성의 교육 수준 및 직업훈련 시스템

(답변) 캄보디아 역량체계(Cambodian Qualifications Framework: CQF)에 따라 모든 캄보디아 남성과 여성은 일반 학문과 직업훈련 분야에서 박사학위까지 공부할 수 있음. 공학 분야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은 여성들이 있지만, 공식적인 기술훈련을 받는 여성의 수가 비공식 훈련을 받은 여성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 노동부(Ministry of Labour and Vocational Training: MLVT) 내 TVET Directorate General(DGTVET)이 TVET 훈련과 개발을 담당. 노동부에 등록된 111개 연수기관 중 39개 공공 기관만 DGTVET 총괄 하에 공식 코스(1년 이상)와 비공식 코스(1주~4개월) TVET 직업 훈련을 여성, 취약계층, 장애그룹, 소수민족을 포함한 캄보디아 국민에게 제공함.

○ (질문) 연수 프로그램

(답변) 트랙 1: 빈곤 감소 -

단기 연수 (Certificate 코스 / 비공식 연수), CQF Level 1:

- 지역 기반 연수
- 사업 기반 연수
- 센터 기반 연수
- 견습직
- 특별 연수
- 역량 연계 프로그램
- 수확 후 관리기술 및 식품가공
- 기타

트랙 2: 산업발전 지원 - 장기 연수 (최소 1년 코스) CQF Level 2에서 시작

- Certificate I, II, III
- High Diploma
- Engineering/Bachelor
- Master
- PhD

○ (질문) 정부가 생각하는 여성 직업훈련의 방향

(답변) 노동부는 캄보디아 정부와 ADB 및 프랑스 AFD 프로젝트인

TVETSDP 지원을 받아 2015-2025년 5개 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음 (자동차 정비, 건설, 비즈니스/ICT, 전기, 제조 분야의 공식 및 비공식 훈련 코스). 여성과 남성을 모두 대상으로 함. 특히 여성들이 TVET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도록 교실, 실험실, 여성기숙사 등 기반시설을 갖추고, 로드쇼, TVET날 행사, 브로셔, 포스터, 성공사례 공유, TV 및 라디오 등 소셜마케팅 진행. 교사 역량 강화. 고용업체의 요구에 대응하고 학생들의 실질적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턴십 연계.

○ (질문) 5개 부문 프로젝트에 여성 지원자 수

(답변) 2016년 전체 / 여성 수 (단위: 명)

8	PhD	
7	Master	
6	Bachelor/Engineering	15,104/3,408
5	High Diploma	6,881/961
4	C3	203/21
3	C2	309/41
2	C1	1,477/357
1	Vocational Cert.	11,238/6117

여성 지원자 수 목표는 30%이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

바. 캄보디아 현지 여성정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농촌개발 분야

□ 배석자

캄보디아 참석자	Mr. Touch Siphath (농촌개발부), Ms. Hou Nirmita (여성부), Mr. The Chhun Hak (여성부), Ms. Sem Chenda (컨설턴트), Ms. Thyda Khus (CSO), Ms. Reasy (CSO)
본원 참석자	김은경 연구위원, 김복태 연구위원, 김영택 연구위원, 조영숙 객원연구원, 심예리 위촉연구원

□ 면담 내용

○ (질문) 농촌개발부 역할

(답변) 조정 역할을 하며, 범분야 이슈를 다룸. 모든 부문과 관련이 있는데, 차이점은 농촌지역 주민들과 특히 외진 지역에 중점을 둔다는 것임. 주로 역량강화, 소농, 식량안전, 물과 위생 등 농촌지역사회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 소액금융, 영세기업을 위한 기술교육 담당하는 부서도 있음. 예산의 80%는 농촌 도로에 집중되어 있음.

○ (질문) 조정 역할에 대해

(답변) 부처 간 조정 및 개발파트너(DP)들 간에 조정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DP들 간 조정 기능만 함. ADB, WB, KOICA, JICA 지원을 받으며, 흙 가드닝 같은 경우는 농수산임업부와 협력함.

○ (질문) 농촌개발 분야 우선순위 사업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답변) 종합 농촌개발, 물과 위생 등 모두 농촌개발부의 주요 분야임. 물 공급의 경우 2025년까지 농촌지역 주민 100%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 현재는 57% 정도 수준. 농촌 도로는 농촌지역 주민들을 도시 및 사회 서비스와 연결시켜주는 경제적 기반이 되므로 중요함.

○ (질문) 가치사슬에 대해

(답변) 가치사슬이라는 개념은 새로운 개념임. 많은 조정이 필요한 분야이며, 민간 부문이나 단일 부처에 맡길 수 없음. 현재 우리 정부기관은 주로 서비스 제공 방식의 프로젝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가치사슬 창출 위한 조정 기능에 경험이 부족함. 여성부는 기술적인 부분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농부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함.

○ (질문) 농촌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에 대해

(답변) 여성들은 현재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음. 여성들에게 많은 활동을 하라고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일과 삶의 양립과 균형에 대해서 생각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수입창출, 가족 돌봄 등 이중, 삼중 부담을 지게 됨. 지역 사회 여성들에게 포괄적인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마련해야 함. 지역사회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는 큰 도전과제임. 여성들은 사업등록을 위해 필요한 법적 서류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많음. 시장에서 파는 방법을 찾지 못해 중간 상인에게 팔게 되는데, 이 때는 협상 능력이 부족하여 시장가격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팔게 되어 손해를 보게 됨. 또한 여성들이 서로 연대하는 네트워크가 부족함.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한 다음 단계 전략을 세울 때 이러한 측면에 대해 생각해야 함.

사. 캄보디아 현지 여성정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보건 분야

□ 배석자

캄보디아 참석자	Ms. Hou Sophallika (여성부), Ms. Hou Nirmita (여성부), Mr. The Chhun Hak (여성부), Ms. Sem Chenda (컨설턴트), Ms. Thyda Khus (CSO), Ms. Reasy (CSO)
본원 참석자	김은경 연구위원, 김복태 연구위원, 김영택 연구위원, 조영숙 객원연구원, 심예리 위촉연구원

□ 면담 내용

- (질문) 여성의 건강에 대한 이슈가 캄보디아 정부에서 갖는 우선순위

(답변) 니어리 라타낙 4차 전략 중 한 분야가 보건 분야에서의 성 평등 촉진임. 이러한 전략적 프레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정부 수준에서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질문) 보건 프로젝트

(답변)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청년 대상 성교육 프로젝트가 있음. 예산 규모는 적음. 임신부를 위한 영양 교육도 2004년부터 해왔음. 영양에 대한 교육을 받은 이들은 다시 각자의 코원으로 돌아가 여성에게 교육을 제공함. 올해 재생산 보건과 관련되어서 적지만 정부 예산을 받음. 내후년까지 지속하는 사업임. 원조 사업은 The Fred Hollows Foundation 재단에서 지원하는 눈 건강과 관련된 젠더 프로젝트가 있고, UN Women의 HIV/AIDS 관련 프로젝트가 있음.

- (질문) 비전염성 질병에 대한 보건 계획

(답변) 작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젠더에 따라 질병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등, 질병의 확장된 개념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음. 그러나 제한된 예산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함. 남성과 여성의 질병 원인의 차이, 서로 다른 수요에 대해서는 보건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향후 프로젝트에서 고려하도록 하겠음. 그 밖에 충분한 영양이 건강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농촌개발부 및 NGO와도 협력하여 식량안전과 영양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도 이행하고 있음. 또한 인식개선도 중요함. 보건 서비스가 있더라도 사람들이 접근 방법을 모르면 건강을 개선할 수 없음.

아. 캄보디아 현지 여성정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공공행정 분야

□ 배석자

캄보디아 참석자	HE. Khieu Serey Vuthea (여성부), Ms. Hou Nirmita (여성부), Mr. The Chhun Hak (여성부), Ms. Sem Chenda (컨설턴트), Ms. Thyda Khus (CSO), Ms. Reasy (CSO)
본원 참석자	김은경 연구위원, 김복태 연구위원, 김영택 연구위원, 조영숙 객원연구원, 심예리 위촉연구원

□ 면담 내용

○ (질문) 공공행정 분야 ODA 사업에 대해

(답변) 공공행정 분야 4개 개혁 프로그램이 있음. 첫째, 지방분권화 프로그램: Deputy Prime Minister가 리드하는 위원회. 지방정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국가위원회이고, 여성부도 소속되어 있음. 기술 팀은 전체적인 시스템 차원에서 성 주류화에 어떻게 중점을 둘지 전문적 조언 제공. 법률이나 프로그램, 기술연수 등에 있어 젠더가 설계, 이행, 모니터링과 평가 전 단계에 포함되어 있도록 함. 이를 위해 기획부(Ministry of Planning)와도 협력. 지방정부 행정 개혁과도 관련 있음. 개혁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후 지방 정부도 따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역량강화가 필요함.

둘째, 공공행정 분야. 정부가 어떻게 성인지적으로 대응하는지. 예를 들어 행정대학원과 연계해서 공무원들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어떻게 젠더를 잘 인식할 수 있을지 역량강화 함.

셋째, 여성의 정치 참여. 여성 공무원 비율 목표는 20-50% 임.

넷째, 사법 개혁 프로그램. 주로 가정폭력법과 관련된 프로그램. 현재 가정폭력법은 형사재판소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가정폭력과 형법을 연결시켜 처벌까지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음.

○ (질문)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원스탑 서비스 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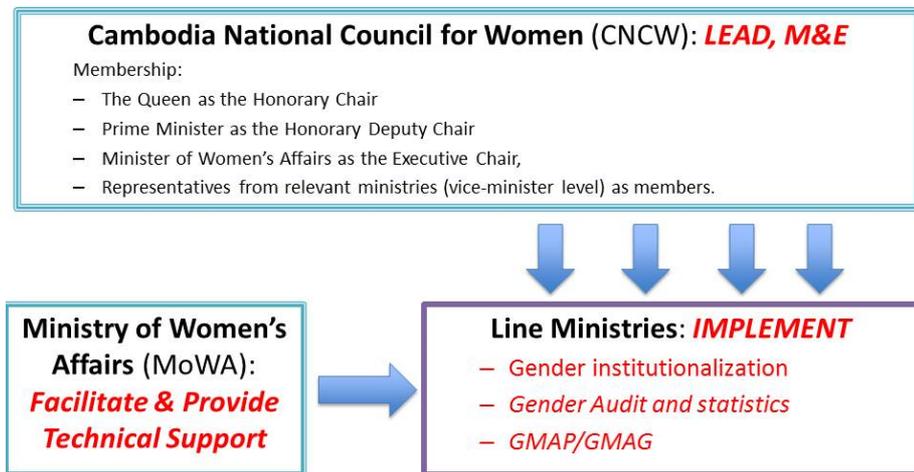
(답변) 실제로 없고, 전달체계(referral system)가 있음. 9개 주에 조정 팀이 있음. 한국 원스탑 서비스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음. 그러나 우리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아직 원스탑 서비스센터를 설립할 때가 아닌 것으로 나타남. 보건부에서 젠더기반폭력을 보건 체계에 통합하기 위해, 핸드북을 만들기 시작함. 원스탑 서비스센터는 건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법적으로 어떻게 지원할지, 상담 및 건강에 대한 모든 것과 관련있음. 여성부가 서비스 제공할 수는 없으나, 이 모든 것을 한 자리에 모으는

조정 역할을 해야 함. 지방 수준에도 아동과 여성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도 어떻게 경찰과 보건센터, 학교 등이 협력할 수 있을지 중요함. 모든 서비스를 연계하는, 원스탑 서비스의 소프트웨어를 뜻함.

○ (질문) 향후 공공행정 분야 젠더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

(답변) 아래 그림과 같이 시스템은 이미 마련되어 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여전히 관련 부처들은 여성부가 전체 인구의 50%인 여성의 이슈를 책임지는 부처라고 인식하고 있음. NR1-3차에서는 여성의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었음. 이제 관련 부처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성 주류화에 중점두어야.

Mechanisms and System to promote of gender equality in Cambodia



출처: 'Inputs for Gender Policy Development' MOWA 발표자료 중